

영과 혼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시와 찬양 -복음으로 여는 시편-

시편 42:10-11, 에베소서 5:18-21

정 윤 돈 목사님

* 시42:10-11 내 뼈를 찢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인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 엡5:18-21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절대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내가 있는 업과 사업을 위하여 올인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 받고 성취될 절대언약의 레마의 말씀이 발견되고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고 실패한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응답 받고 누리고 행복하도록 만드셨다. 인간이 말씀을 놓치고 마귀에게 끌려 다니면 노예, 포로, 속국의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간다. 이 세상이 지옥보다 더 힘들 수 있다. 반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말씀이 내 영혼 바탕 깊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내 자존심, 시기, 질투, 전문성, 지식, 학벌, 배경, 상처가 내 기초가 되어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모래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무너진다. 잘난 것, 못난 것 다 혼전인 것이고 진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반석이 말씀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우면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을 뿌리 내지 않으면 흔들리고 응답 안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능력있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나’가 많고 영적인 문제가 많았다. 잘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 오히려 아프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넘어서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셨다. 다윗이 만든 축복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어야 한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모든 것을 치유 받을 수 있다. 즉, 전인치유이다. 시편은 전인치유의 비밀을 알려준다. 성경을 읽다보면 영혼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불신앙과 모든 것을 박살내야 한다. 능력으로 임해야 한다. 이 치유의 능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되어지는 치유이다. 이것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이 깨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응답이 온다. 내가 받으려고 발악하면 응답이 안된다. 발악하지 말고 누리기를 바란다. 주께 다 맡겨라.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어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우리의 노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절망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적이 생겼을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또 우리들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시편은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말씀과 기도와 시와 찬양과 악기를 통해서 치유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 주고 있다.

오늘은 시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tehllim)’이다. 이는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헬라어번역 성경인 70인 역에서는 ‘살모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가의 책’ 또는 ‘반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구약시대에는 시편으로 모든 찬양을 드렸다. 찬양은 우리의 온 몸으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는 찬양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있고, 이것들은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70권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편의 사를 기록한 작가는 여러 사람들이다. ① 다윗이 73개, ② 모세가 1개, ③ 솔로몬의 작품 2개와, ④ 고라의 아들들, ⑤ 아삽, ⑥ 여두둔, ⑦ 에단, ⑧ 헤만 등이 있다. 시편의 특징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총 283구절에서 구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160절을 시편에서 인용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주는 시편의 말씀과 치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말씀이 있다.

1)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대표적이 말씀이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만족과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 오직 참 목자되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실 수 있다. 말씀으로 은혜되지 않으면 사람들과 다 원수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해라.

2)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 누구도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줄 사람은 없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고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3) 시편 147편 3절 말씀에서는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2) 시편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 주는 말씀이 많이 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생각으로 온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는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생각하다가 미쳐버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에 받을 축복이 떠오른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3) 시편은 우리의 혼을 치유해 주는 말씀이 있다.

1)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성경말씀은 이같이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 앞에 짐승이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의 지식, 경험, 사상, 철학, 학벌, 돈, 세상 성공, 판단, 기준까지도 치유될 때 참된 복음과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상과 이념이 영혼에 박하면 살리는 생각이 아닌 죽이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들의 지식과 기준 즉, 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완전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 시기를 바란다. 내 자존심까지도 박살나야 한다. 그래야 새 것이 될 수 있다.

2)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으므로 노인보다 나으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이가 들고 안 들고 관계가 없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한다.

(4) 시편은 우리의 근본적인 영을 치유해 주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

1)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훈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죄용서와 구원을 바라는 말씀이다. “주님의 많은 공훈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가 있었다. 어디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가. 누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달려든다. 믿을 사람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더 큰 응답을 주신다. 이것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로 결론 낸 것이 반석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아무도 여기에 시비 걸 사람이 없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2) 또 시편 51편 2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3)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영이 치유된다.

(5) 시편은 우리의 삶까지 치유해 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다.

1) 어려운 상황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18편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해방과 자유다.

2)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신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4) 복음의 기문과 후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람과 그 후대를 지켜주신다.

5) 우리의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시편 5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에게 손을 들어 보응하셨음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눈으로 보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대적과 원수를 멸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악은 악인을 죽일 것이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심지어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원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과 싸우지 말고 주께 맡겨야 한다. 이와 같이 시편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우리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시편에 예언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 받고 치유 받을

수 있다. 말씀 속에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발견하면 사탄의 재앙과 저주는 박살나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확히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년 전부터 기록된 시와 찬양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님과 동일본질하신 하나님이 ‘왕의 왕 그리스도’이다.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약 343회이고, 암시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2309회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시편에 가장 많은 79회의 직접적인 예언과 343회의 암시적인 예언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먼저 몇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다.

1) 첫째로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기쁨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쁨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2) 시편 2편 12절에서는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시편 22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고 있다.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 시편 22편 16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시편에는 약 400회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며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의미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치유된다.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시편 전체가 찬양을 위한 가사이다. 노래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참여하시기 바란다.

(3) 복음적인 시를 창작함으로 우리는 치유 받고 우리들의 믿음이 정리되고 깊어질 수 있다.

(4) 춤을 춤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몸찬양과 춤을 추는 것은 우리들의 온몸으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5) 찬양을 위해 악기를 연주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악기를 하나씩 배우시기 바란다. 지금 전 세계에는 약 2만 개 정도의 악기가 있다고 한다. 많은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다.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4절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악기로, 목소리로, 온몸으로 인생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란다.

시편의 말씀과 기도와 시와 찬양을 통해 완전치유를 받고 시편에서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삶이 치유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